

익산, 미래 먹거리 주도 활발

‘푸드통합지원센터’ 출범 주력... 4월 내 법인 설립 계획

익산시가 미래먹거리 전략인 푸드플랜을 총괄 실행할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출범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익산시는 푸드통합지원센터의 5월 출범을 위해 이달 말 창립이사회 후 전북도 허가를 받아 4월 내 법인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법인 설립을 위한 초대 임원을 선출했다. 또 센터 운영을 위해 합의를 제4일 반산업단지 5045㎡ 규모의 가용부지를 확보했다.

시는 올해 국가 공모사업에 대응해

국비를 확보한 후 농산물 전처리시설, 농산물 가공과 상품화, 저온저장고 등을 갖춘 종합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재단법인 운영을 통해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차별화된 먹거리 전략을 구축할 계획이다.

학교급식 식재료 전 품목 공급과 지역 축산물 공급, 로컬푸드개발, 가격경쟁력 확보 등으로 물류 효율성을 높이고 농가 수수로 절감을 통해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아울러 중소농가의 원예농산물 생산

량 전량 판로 확보를 목표로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처를 넘어 외식업과 기업급식 등 민간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법인에서 운영할 서부권 로컬푸드 직매장도 오는 9월 개장을 목표로 건립되고 있다.

시는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등 중소농 중심으로 농가 조직화를 진행 중이며 지역 생산 농산물을 바로 소비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 농가소득 보전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소방서는 최근 익산시 창인동에 위치한 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소방출동로 노면 진입번호표 가상화재 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익산소방서, 전통시장 화재대비 훈련

소방출동로 노면 진입번호표 진입으로 골든타임 확보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최근 익산시 창인동에 위치한 중앙시장에서 전통시장 소방출동로 노면 진입번호표 가상화재 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전통시장이 시내권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특성을 반영하여, 주 출동로에 설치된 진입번호표 순으로 적절하게 진입해 화재현장 도착 골든타임 확보와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다.

익산시 전통시장 화재발생현황을 살

펴보면 2013년 9월 북부시장 재산피해 780만원(인명피해없음), 2016년 6월 14일 금마시장 재산피해 376만원(인명피해없음), 2017년 6월 22일 중앙시장 재산피해 12,397만원(인명피해없음)등이다. 이에 익산소방서는 김주일 현장대응단장 주도하에 소방출동로 확보, 소방차 부서 위치확인, 소방활동 대응방안 모색, 비상소화장치 점검 등 소방차 5대와 소방대원 17명이 동원해 현장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2021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평가

원광대병원, 만족도 가장 높다

전국 10위, 비수도권 1위 선정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이 ‘2021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평가에서 병원 분야 전국 10위, 비수도권 1위에 선정 됐다.

지난 5일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는 국제적 랭킹, 독일의 세계적인 조사기관 스타티스타(statista)와 함께 임직원 200명 이상 국내 기업 재직자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기준은 가족이나 친지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와 동종업계 종사자에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기업 이미지, 신뢰도, 성 평등, 사회적 책임, 문화, 복지 등 48만건 이상의 데이터를 취합, 평가해 4500여개 기업 중 30개 분야 400개 기업을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했다.

2021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 병원 분야 전국 10위, 비수도권 1위에 오른 원광대병원은 장기화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내부 구성원들을 위한 근무환경 개선, 사내 소통 프로그램 마련, 직원 복리후생 확대 등 행복한 직장 만들기 지속적으로 노력, 고객과 내부 직원들을 만족시키는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병원과 종합병원 중 1위를 차지하여 지방 소재 대학병원으로서 만족도 높은 직장으로서 평가 된 것이다.

윤권하 병원장은 “본원은 각종 평가 및 조사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아 왔다. 이는 의료진과 직원들이 환자 및 내원객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들이 빛을 본 것이다. 앞으로도 고객 만족을 물론 내부 구성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 강화

위험징후 파악 등 선제적 예측, 3월 시행 ‘즉각분리제도’ 인프라 확충 계획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요즘, 군산시가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 발표와 연관된 것으로 초기 대응의 전문성 강화, 대응 인력 확충, 즉각분리제도 시행, 인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시는 영유아건강검진 미접진 및 어린이집·유치원 결석 등 총 43종의 정보 연계로 추출된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개선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는 통합사례관리 등 지원 연계와 아동학대 위험징후 파악 및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통해 위기가동을 선제적으로 예측·발굴하고 사례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즉각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즉각분리제도 시행 후 피해아동의 일시보호 수요 증가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쉼터(1개소) 상반기에 신설,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 보호 조치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며 피해아동의 심리·정서 치료를 제공한다. 쉼터 설치 전까지는 지역내 운영 중인 양육시설 등을 정비해 아동학대사건 발생 시 즉시 분리 등 피해 아동보호에 적극 대처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 대응과 전문적인 사후 치료지원을 위

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의 지정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시는 아동보호전담요원(2명)을 배치해 요보호아동 사례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아동학대 사건 신고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해, 공공중심의 아동보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창환 복지환경국장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생존권과 보호권 등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소중한 우리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올해 군산시민 안전보험 자동 재가입

군산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안전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후유장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2021년 군산시민 안전보험 재가입을 추진한다.

이번에 가입하는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작년 2월에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가 군산시민(등록외국인 포함) 전체를 대상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 오는 20일부턴 시행하게 된다.

‘군산시민 안전보험’은 군산시가 도

비와 시비를 통해 비용을 부담해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직접 계약하고 각종 자연재해 및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단체보험이며, 보험료는 군산시가 전액 부담한다.

보장항목은 총 14개 항목이며 ▲자연재해사망(일시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 위로금, ▲익사사고사망, ▲농기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사망 및 치료비(멧돼지, 뱀, 벌)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3년 이내에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 1577-5939)에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항목별 보장금액이 최대 1천만원으로 중복수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읍면동 신년대회사작

군산시는 2021 신년 새해를 맞아 오는 22일부터 조촌동을 시작으로 7일간 ‘주민과 함께하는 읍면동 신년대회를 시작한다.

이번 신년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읍면동별 30명 이내의 주민이 참석하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하면서 실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시 즉각 중단할 예정이다.

신년대회는 실질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딱딱한 형식을 탈피하고 격의 없는 분위기속에서 주민의 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고 미래 군산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의회, 의장단 간담회

익산시의회가 원활한 의정활동과 주요 현안 공유를 위한 의장단 간담회를 18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 10일부터 치러지는 제234회 임시회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간담회에는 유재구 의장, 박철원 부의장, 김수연 의회운영위원장, 김경진 기획행정위원장, 김진규 보건복지위원장, 강경숙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석했다.

의장단은 제234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주요 내용과 2021년도 의원 연구단체 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 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맞춘 의원 청렴교육 운영 등 의원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입법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다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다각적인 방향으로 의회의 역량을 강화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의회 운영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유재구 의장은 “이번 의장단 회의는 임시회 준비와 의회 관련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익산시의회는 2021년에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매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